

음악 고문

나 운 영

「음악 고문」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것도 감투의 하나로 생각하기 쉽겠지만 내가 말하는 고문이란 고문顧問이 아니라 고문拷問이다.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면 의례 카세트 테이프를 들려준다. 지루한 여행에 지친 승객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기 위해 이처럼 서비스를 해주니 그저 고맙기만 하다. 그런데 들려오는 음악은 거의가 소위 유행가이며 그나마도 여러 가지가 아니라 대여섯 곡이 항상 되풀이되기 때문에 한두 시간을 앉아 있노라면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같은 곡을 복습(?)하게 된다. 그것도 좀 조용조용히 들려주었으면 모르되 너무 큰 소리로 들려주니 우리같이 유행가를 좋아할 줄 모르는 족속들은 들을 수도 안 들을 수도 없어 그야말로 진퇴유곡이다.

그야 내 취미에 맞는 음악만을 들려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순수음악과 경음악, 고전음악과 현대음악, 양악과 국악, 기악곡과 성악곡 등 좀 번갈아 골고루 들려주었으면 그래도 참고 견딜 수가 있겠는데 거의 유행가만을 강제로 먹여주니 이것을 참고 꿀꺽꿀꺽 삼키고 있노라면 음악 고문音樂拷問이란 말이 저절로 머리에 떠오른다. 「음악이란 이다지도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일까? 내가 — 베토벤처럼 — 왜 귀머거리가 못 됐단 말인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비단 기차나 고속버스뿐만이 아니라 시내버스, 택시, 다방 등 가는 곳마다 과히 고상치도 못한 음악 속에서 살게 마련이다.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나라의 민도民度가 외국인들에게 그릇 저울질 될까 봐 두렵기만 하다.

<1970. 7. 월간 샘터>

[부록] 바다는 부른다 (III)

제주도라면 해녀를 연상케 된다. 그런데 그림이나 사진에서 보는 해녀는 마치 미스 코리아를 보는 듯할지 모르나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바다 속에서 중노동을 하는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이다.

뒤웅박에 몸을 의지하고 푸른 물결을 헤엄쳐가며 방수경을 쓰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진다. 제주도에 여자가 많다는 것은 관광여행을 해보면 즉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밭에서, 집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근로정신을 배워야겠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굳세게 살아나가는 그 마음의 자세를 본받아야겠다. 노래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노래하는 그들의 좋은 습관을 닮아야겠다.

여러분 나는 위에서 「바다로 가자」란 노래와 「바다는 부른다」(박태현 작곡)란 노래를 소개했다. 하나는 여름에 마음껏 즐겁게 놀자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릴 것 없이 땀 흘려 부지런히 일하여 잘살아 보자는 내용이다. 저 영국 사람이나 스페인 사람들처럼 우리도 바다를 정복할 줄 아는 민족이 되어야겠다.

바다의 빛깔이나 바다 물결의 리듬 변화만을 감상하는데 그치는 나 같은 사람을 닮지 말고 바다

에 뛰어 들어가 헤엄을 치고 놀기만 하는 자도 되지 말고 제주도의 해녀처럼 바다를 정복하고 바다의 보배를 캐내는 학생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1970. 8. 월간 학원)